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 아담의 씨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부활하신 사실에 의지해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 마지막 날에 - 재림 때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실제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안 죽어야 한다. 그런데 죽는 것은 똑 같다.

지금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 죽는다. 예수님 깨서 오셔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된다.

우리가 영생을 두 번 얻는가? 한 번 얻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다고 했는데 그런데 죽는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 베를린 훔하모니 오케스트라 - 듣는 일을 좋아하는 마니아  
12월 마지막날에 왔다. 10월 부터 예매를 한다.  
표를 가지고 있으면 오케스트라 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건가? 그렇다.  
표를 가진 날 가면 들을 수 있나? 아니다. 오케스트라 오는 날에야 가서 들을 수 있다.  
지금 영생은 예매하는 것과 같다.  
이보다 더 오케스트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행갔다 오니 광고가 있는데 다 팔렸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가 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만나서 표 가지고 있다며 얼마 줬어? 10만 20만 줄게 팔어. 50만원? 괜찮겠는데?  
너 영생 예매권 가지고 있지? ... 줄게 팔아. 유혹이라고 한다.  
우리 예매표를 유혹하는 세력이 많다. 핍박도 한다. 부귀. 영화.  
영생은 한번 얻는 거지만 두 단계다.  
지금 받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도 영생 예매권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한다. 정신없이 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 이렇게 되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 부터 난다는 것과 같다. 위로 부터 오시는 이 = 거듭남과 같다. ἄνωθεν 위로 부터  
31-마지막 절 (36) 까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이라고 소개한다.

요 8:23-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up>24</sup>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셨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났다.

여자의 씨 =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는 다 아래서 난 사람이다.

거듭남 - 예수님처럼 위에서 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법과 같이 태어나는 것이다.

요 3:5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거듭남 =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 같이.

이 거듭남 속에 예매와 실재 두 단계를 뜻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두 단계: 첫 단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단계,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들어가는 단계 → 요한복음 3장에 암시되어 있다.

우리는 하늘 나라 매일 보고 살아가는가? 그러나 때때로 먼눈 판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 그러다 구덩이에 빠지면 못 본다. 못 나오면 죽는다. 그러나 빠졌구나 하고 나오면 하늘 볼 수 있다.

그러나 빠지지 않고 잘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다.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신이 아니고 영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다. 우리와 같은 몸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이 되는 것이다.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아는 것도 중요하다. 물 - 침례

벤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물로 거듭남 - 침례를 받는다는 뜻이 포함된다. 더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침례가 소용이 없다는 뜻. 침례 받는 것은 예수함께 죽고, 예수 함께 장사지내고, 부활한다는 예식인데.

물로 거듭남 -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벤전 1:3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거듭남이 없다는 뜻이다. 거듭남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롬 8:2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가 가르쳐 주셨다.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 하신다는 뜻이다.

살리는 것은 영 =>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께서는 성경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나 성령받았다는 사람이 성경밖에서 일하면 가짜 성령이다.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받는다.

성경연구 할 때에 신발벗고 잘 받아야 한다.

신발 벗는다는 뜻 = 권리를 포기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룻 4:8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눅 8:18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눅 10:25-26 어떻게 읽느냐?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지식 다 내려 놓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거듭난지 어떻게 아는가?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린다.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

롬 8: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진다. => 생각이 성경적이 되는 것이다.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 테스트 해 볼 수 있다.

눅 22:3 ...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룻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육신의 생각이 들어갔다. -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면 시험에 빠진다.

마음 속에있는 성령의 법은 성경의 말씀을 말한다.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투쟁한다.

갈 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sup>17</sup>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이 자꾸 침입한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 => 그 때 성령을 소욕으로 물리쳐야 한다.

빨리 내 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시험에 오래 흔들리다가 육신적으로 핵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올 때는 속히 쫓아야 한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의 예를 들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치는 경험을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 전적으로 성령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전도- 내가 했다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굴복하게 한 분은 성령님이시다. 나는 도구 밖에 안 된다.

교회일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는 것 처럼 말하게 된다. 일하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는 대로 일 한다.

마 25 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31-46 절)

오른 쪽 - 양 - 이런 일 했다고 하신다. 우리가 언제 했는가? 말한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왼쪽 - 염소 - 내가 안 했다 그러신다. 우리가 언제 안 했는가? 자기가 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기억을 못 한다.

벧전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는 일 -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해 놓으신 것이다. 실제로 되야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καρπός

圣灵所結的果子，就是仁愛，喜樂，和平，忍耐，恩慈，良善，信實，溫柔，節制。這樣的事，沒有律法禁止。

Shènglíng suǒ jiē de guǒzi , jiù shì rénài , xǐlè , hépíng , rěnnài , ēncí , liángshàn , xìnshí , Wēnróu , jié zhì .  
zhèyàng de shì , méiyǒu lǜfǎ jìnzhǐ .

성령의 열매 이름 = 성령의 열매 => 하나. 맛이 9 가지.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 한 가지만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은 가지가 노력해서 열리나? 아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요 15: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열매맺는 일은 농부가 걱정한다.

너희는 가지라. 잘 붙어 있으라.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걱정은 농부이신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농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나무에 붙어있지만 하면 나무로 부터 생명력을 계속 받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받는다. 실지록 생명력을 계속 받아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명상하면 생명력을 받는다.

성경=생명의 말씀

성경통독 – 몇번 하는가? 최소한 한 번 읽어야 한다. 두 세번 읽으면 더 좋다.

시대의 소망의 뿌리는 성경이다.

신학 졸업생 인턴 시험: 십계명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적으라. 2300 주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 정답을 쓴 사람 20% 숙제하느라 성경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열리는 열매는 다 성령의 열매다. 자기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 했을 때 이 부활의 생명의 성질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친다. 새 계명이 무엇인가?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다.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 도덕적인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 =>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

고전 13 장 사랑장

3 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이세상에서 도덕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sup>1</sup>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sup>2</sup>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sup>3</sup>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요일 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잘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다.

마 11: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다.

원수사랑. 무겁나? 쉽고 가볍나? 보복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은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게 위하여 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살리려는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다.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정신.

스데반 - 사울 - 원수였지만 기도 -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다.

스데반이 바울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쁠것인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무겁지 않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수도 생명으로 옮기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가볍다. 무겁지 않다.

형제도 예수안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람의 생명의 성질이다.

여기서 훈련받고 시키는 것은 원수사랑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다. => 제일 선교다.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성질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기 왔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함께 지내면서 상대방이 속상하게 하는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다. => 생명을 갹아먹는 일이다.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만 하면 좋다. => 생명이 나타나는 성질이다.